



◇ 프롤로그 ◇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會長：閔寬植) 주최 제 7 차 國內의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24일(木) 남서울호텔에서 열린 座長 및 任員, 在美科學者 대표들의 合同午餐 및 綜合評價회를 끝으로 盛大한 祭典의 막을 내렸다.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서울大 冠峽 캠퍼스 교수회관과 충남대 대전 전문연구단지 표준연구소를 중심으로 열린 이번 종합학술대회에는 ① 數學·統計 ② 電算·OR ③ 物理學 ④ 農學·食品工學 ⑤ 化學·化學工學 ⑥ 生命科學 ⑦ 材料·金屬工學 ⑧ 機械·產業工學·宇宙科學 ⑨ 電子·電氣·通信 ⑩ 建設·環境 ⑪ 資源·에너지 ⑫ 科學과 社會分科 등 12개 분과로 나뉘어 129편(在美 55편, 國內 74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在美 한국인 과학기술자 70명과 가족 80명, 그리고 국내 과학기술계 인사 3050명 등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매머드 종합학술제전에는 수준 높고 알찬 학술논문 발표와 기술정보 교환으로 國內의 과학자 상호간의 유대 강화는 물론 國內 과학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祖國의 현실을 이들

에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祖國觀을 갖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커다란 계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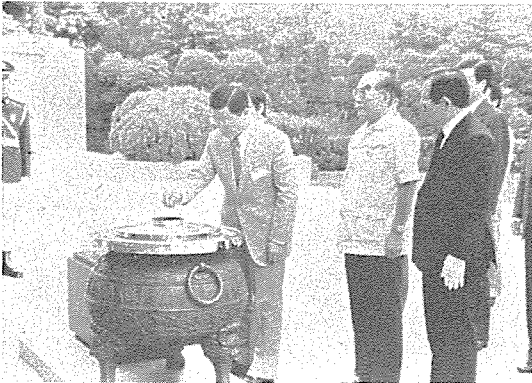
◇ 歸國과 大會準備 ◇

4개월 전부터 이대회를 준비해 온 科總은 기구 마저 잠정 개편, 운영 본부를 중심으로 학술·섭의 총무·경리·진행 등 각 부서를 마련하고 전직원이 연일 밤낮도록 근무했다.

이들이 귀국해서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떠날 때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본부 직원들이기에 5感도 모자라 6, 7感까지 동원해야 하는 초비상.

9일(水)부터 시작된 在美科學者들의 歸國行列은 새벽 5시, 밤잠을 설치고 金浦空港에서 이들을 맞는 본부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에 새로운 祖國의 體溫을 느끼는 듯 11일(金) 13(日) 연이었고 沿道의 변모한 모습에 감탄을 연발.

귀국하기가 무섭게 13일 11시부터 서울大 교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國內측 임원들과 相面을 하고 오후 2시에는 곧바로 國立墓地에 參拜, 한치의 여유마저 없는 빡빡한 日程이 시작되었다.



〈국립묘지를 참배한 재미과학자들〉

◇ 開會式 ◇

장마철 꺾은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14일(月) 오후 3시 중앙국립극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1,500여명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 국내 과학기술계 최대학술제전의 개막을 축하했다.

대회장 단상에는 閱寬植大會長, 成佐慶長官을 비롯한 科學技術界, 經濟界 元老들이 자리잡았고 주한 中國, 佛蘭西大使등의 모습도 보여 이채로웠다.

특히 이날 개회식은 예년과 달리 崔享燮(韓國科學院長)박사의 科學技術과 經濟와의 관계를 밝히는 특별강연이 있어서 학술대회 개회식으로서의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개회식에 이어 同劇場 2層로비에서 벌어진 本大會 大會長과 科技処長官초청 리셉션에는 개회식에 참석했던 1천여 科學技術界人士 들이



〈개회식이 끝난후 1,000여명이 참석한 중앙국립극장 2층에서 열린 리셉션.〉

10개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정다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더구나 장마비로 한결 깨끗해진 南山의 녹음이 넓은 유리창을 통해 손에 잡힐듯 가깝게 다가와 숲속 풍취를 한결 풍겨주었다. KBS 金康燮樂團의 은은한 반주가 한결 분위기를 돋우어준 리셉션은 오후 6시경 내일의 학술발표회를 기약하며 아쉬움 속에 끝났다.

◇ 學術發表會 - 서울大 教授會館 ◇

15일(火)오전 10時, 學術發表會 開幕을 앞두고 式場은 30分前부터 門前盛市를 이루었다. 각분과 별로 입구에 마련된 등록테이블은 밀리는 인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동대문시장을 방불케 했다.

예상을 넘어 밀어닥친 참가자들 덕분에 교수회관 1. 2층과 R. O. T. C 본관에 마련된 8개 발표장은 좌석이 모자라 간이 의자가 등장했고 방을 옮기느라 혼잡을 떠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점심식사를 담당했던 教授會館 食堂은 예상을 훨씬 넘는 손님들로 반정도는 뒤늦게 허기를 때워야 하는 곤경도 겪었다.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것들이 많았으나 在美참가자 가운데는 自社機密에 관계되는 발표내용이 있어 對外秘라는 주석을 다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KBS-TV의 録面로 각광을 받은 「워크샷-80년대 한국과학교육의 과제」에서는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야한다는 이나라 科學教育界重鎮들의 거침없는 발언이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줄 만큼 시원시원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成佐慶科技処長官은 15일 오전 학술 발표회장에 도착, 발표회장을 하나씩 모두 돌며 발표내용에 귀를 기울였으며 본부직원들의 勞苦를 치하했다.

15일 오후에는 가족관광을 마친 재미과학자 가족들을 위한 서울대총장 초청환영연이 교수회관 앞 500여명의 잔디밭에서 열려 멀리 冠岳山을 배경으로 시원한 선들 바람결에 화기애애한 시간

을 보냈다.

첫날 발표된 논문은 62편(국내35편, 재미27편) 참가인원은 1,500여명이었고 둘째날은 50편(국내 26편, 재미 24편), 1,100여명이 참관했다.



<조만원발표회장, 閔大會長을 비롯한 여러인사들이 보인다.>

◇ 大德專門研究団地 ◇

제헌절인 17일(木) 오후, 버스 5 대에 분승한 大德団地 참가자들은 世宗文化會館앞을 출발하여 오후 5 시경 표준연구소에 도착했다. 이들은 同研究所강당에서 大德研究団地에 관한 브리 핑을 管理事務所로부터 청취하고 곧바로 団地 見학에 나서 韓國船舶研究所를 둘러 갖가지 모양의 선박을 관찰한뒤 儒城에 마련된 숙소로 향했다.

安京模産業基地開發公社社長은 이들을 위해 儒城호텔에서 리셉션을 마련해 주었으며 閔寬植 大會長을 비롯해 徐明源 忠南大總長등 많은 地方人事들이 참석, 이들을 따뜻이 맞이했다.

18일 표준연구소에서의 學術發表는 모처럼 만 에 열리는 地方에서의 대규모 학술발표회여서인지 大田市内 각급학교 학생과 대덕단지 연구원들이 雲集, 서울大會 못지않은 성황을 이루 으며 발표테마들이 모두 時宜에 맞는 에너지 문제들이라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婦路에 大淸담을 견학, 罐水를 시작한 밤의 웅장한 모습에 다시한번 놀라움을 보였다.

◇ 다채로운 特別行事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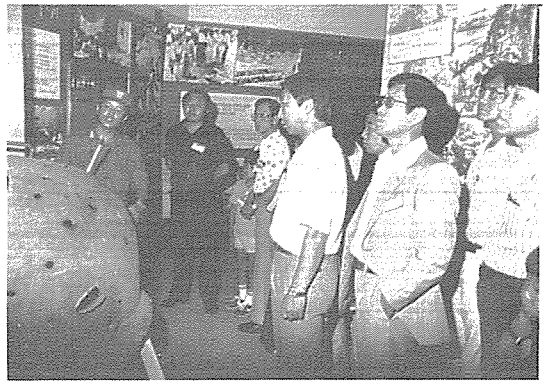
學術發表, 그것도 無味乾燥한 科學技術 關係만을 다루어온 이들에게 갖가지 행사가 베풀어

졌다.

이미 記述한 각종 리셉션 이외에도 일선방문, 교육및 연구기관 견학, 가족관광, 산업시찰, 각 기관 예방등이 바로 그것.

경복궁과 민속촌을 둘러본 家族觀光은 15일(火), 5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고 제 3 명굴과 松嶽전망대, 임진각을 들른 일선방문은 19일(土), 70명이 참가했다. 같은날 다른그룹 은 경희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등 교육, 연구기관 견학에 나섰다.

한편 산업시찰을 겸한 워크샐은 21일부터 23일까지 계속 되었는데 대한상공회의소, 자원개발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등이 각각 별개 그룹을 인솔하여 有關기관들을 둘러 보았고 나머지 인원은 昌原 蔚山, 浦項, 慶州등을 거쳐 일반 산업시찰코스를 마쳤다.



(일선방문에 나선 재미과학자들이  
별공전시관에서 각종 전시물을 보고있다.)

◇ 에필로그 ◇

매년 되풀이되어온 在外한국 과학기술인 초청 학술대회는 금년으로 일곱번째를 맞게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차고 보람된 대회가 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대회진행 방식을 일부 변경, 우리가 필요로하는 부문을 중점 토의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集中된 대회가 될것같다. 그러나 금년에도 이 대회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0년, 20년 만에 보는 조국의 모습이 일부 못마땅한점이 없지는 않지만 뿌듯한 긍지를 갖일수 있었다는 공통된 의견이다.